

광양시 “스타트업 기술 실증부터 지역 정착까지 확장”

市, 협약 기업 양산 준비 상황 점검
870억 투자·105명 이상 고용창출
스케일업센터 조성 국비 5억 확보

광양시가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부터 성장,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스타트업 스케일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한 기업 4개사를 방문해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확장 계획을 공유했다.

광양만권은 이차전지·철강·첨단소재 분야의 앵커기업이 집적된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 검증과 양산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기술력은 있으나 양산 단계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



정인화(오른쪽) 광양시장이 최근 지역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해 사업 추진을 점검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해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스케일업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발맞춰 스타트업 성장 단계에 맞춘 체계

적인 실증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따라 파일럿 설비 설계부터 구축·최적화, 기술 실증, 투자유치까지 스케일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가칭 ‘스케일

업실증센터’ 유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내년도 스케일업실증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5억원을 확보했으며 센터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9월 열린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 지원사업 킷오프’ 행사에서 ▲주에이비알 ▲주네이트로닉스 ▲그린미네랄주 ▲주에버인더스 등 4개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향후 양산 단계로 전환될 경우 광양에 공장을 설립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기업 활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광양시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협약 이후 실증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와 익신산단 일원의 이차전지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각 기업은 ▲배터리 재제조 ▲양극재 직접 제조 ▲폐배터리에서 핵심 공물인 리튬을 친환경 방식으로 회수하는 기술 ▲차세대 나트륨 이온 전지 소재 개발 등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파일럿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스케일업 실증 사업을 통해 향후 총 870억원 규모의 투자와 105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확장 계획을 공유받았다.

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추진 성과와 성장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전남테크노파크, 포스코홀딩스 등 유관 기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부터 성장,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스케일업 실증 지원사업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양산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현실적인 징검다리”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스케일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곡성군 ‘농식품 바우처’ 지원 강화…청년 대상 확대

오늘부터 접수…중위소득 32% 이하
채소·과일·계란·임산물 등 8개 품목
가구원 수 따라 4~10만원 차등 지급

곡성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식생활 개선을 위해 내년도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1일 곡성군에 따르면 22일부터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구매 가능한 품목은 ▲국산 채소 ▲과일 ▲현

우유 ▲신선 계란 ▲육류 ▲잡곡 ▲두부 ▲임산물 등 8개다.

특히 내년부터는 혜택의 폭이 한층 넓어진다. 기존 임산부와 아이들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에 청년(199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까지 범위가 확대되며, 지원 기간 또한 기존보다 2개월 늘어난 1월부터 12월 까지 연중 운영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1인 가구 4만원 ▲2인 가구 6만5천원 ▲3인 가구 8만3천원 ▲4인 가구 1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단, 지원금은 당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며, 10% 미만의 잔액에 한해서는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 중인 대상자는 자격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내년에도 자동으로 지원된다.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콜센터(1551-085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관내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편의점(일부), 농협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향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해 월별 맞춤형 꾸러미 상품을 개발하고 배송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확대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여 영양 보충을 돕고, 지역 농산물 소비도 촉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촉촉한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여수시 중동부 청소년 축구단 '여수해양FC U-15'은 최근 전남문화회관에서 창단식을 가졌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축구 명가 재건 ‘여수해양FC U-15’ 창단

초·중·고 연계 엘리트 육성 시스템 구축

‘축구의 고장’ 여수시가 중동부 청소년 축구단을 창단하며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에 나선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문화회관에서 여수시 중동부 청소년 축구단인 ‘여수해양FC U-15’ 창단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정기영 여수시장과 여수시의 회 백인숙 의장·정신출 의원, 주철현 국회의원, 명경식 여수시체육회장, 백도현 여수교육지원청장을 비롯해 선수단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축구단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특히 여수 출신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이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하며 자리를 빛냈다.

그동안 여수는 신연호, 노인우, 고종수 등 걸출한 국가대표를 배출한 축구의 산실이였으나, 중동부 축구팀의 부재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초등부 졸업 후 우수 선수들이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면서 인재 유출은 물론 가족 동반 이주에 따른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창단으로 여수시는 ‘미평초(초등) - 여수해양FC U-15(중등) - 여수해양FC U-18(고등)’로 이어지는 탄탄한 지역 엘리트 축구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명경식 여수시체육회장은 “중동부 축구단 창단은 지역 체육인들의 오랜 노력과 기다림 끝에 맺은 결실”이라며 “여수해양FC U-15팀이 명문 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육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기영 여수시장도 “이번 창단이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선수들이 부상 걱정 없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수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사업으로 ‘꿈의 사다리, 그 마지막 칸을 채워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 축구단(U-15, U-18) 운영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며 축구단 성장을 돕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화순군 연둔리 숲-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

道 관광자원개발사업 선정

화순군은 21일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2026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동북면 연둔리 숲-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5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동북면 연둔리 마을 숲과 김삿갓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자연·역사·문화자원을 결합한 체류

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동북면 김삿갓 유적지는 방랑 시인 김삿갓의 삶과 문학적 가치를 간직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주변의 수려한 숲 경관과 어우러져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그동안 접근성 부족과 기반 시설 미비로 체계적인 관광 자원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광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김삿갓 초분지 정비, 주차장 조성, 김삿갓 로드 조성 등과 함께 스토리텔링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을 병행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온 결과 이번에 관광자원개발 신규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북권 관광자원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걷기·휴식·체험이 가능한 관광벨트가 조성돼 관광객 유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이병철 기자

보성군, 9억 투입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오늘부터 5천939농가 ha당 51만원

보성군이 ‘벼 경영안정대책비’에 군비 9억여원을 긴급 투입하며 농가 소득 지키기에 나섰다.

21일 보성군에 따르면 쌀값 하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이종고를 겪는 벼 재배 농가를 위해 22일부터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한다.

당초 군은 도비와 군비를 합쳐 총 30억5천600만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근 전남도의 재정 조정 여파로 도비 지원액이 50% 삭감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15억2천800만원으로 급감해 농가 지원에 차질이 우려됐다.

이에 보성군은 농가 경영 안정이 최우선이라

는 판단 아래, 자체 군비 9억1천880만원을 추가 편성해 최종 사업비는 24억4천500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전체 사업비 중 군비 부담 비율은 기존 60%에서 78%(18억3천300만원)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지원금은 5천939농가(4천781ha)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ha당 51만원이며, 농가당 최대 2ha(10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벼 재배 농가는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는 판단하에 도비 삭감분에도 불구하고 군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고흥 대서면에 복합문화공간 문열어

43억 투입 어울림센터·주차장 등 조성

고흥군 대서면에 문화와 복지, 교통 인프라를 갖춘 살기 좋은 고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대서면 어울림센터에서 ‘대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대서면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업의 완료를 축하했다.

해양수산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부

터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해 대서면 화산리와 인남리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570㎡ 규모의 핵심 거점 공간인 ‘어울림센터’를 새롭게 건설한다.

이곳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 시설로 활용된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면 소재지 진입도로를 기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해 교통 편의를 높였고, 부족했던 주차 공간을 새로 조성해 접근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978㎡ 규모의 캠핑장 정비와 어린이들을 위한 물양장 신설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도 완료했다.

/주성학 기자



담양교육지원청, 전기차 체험·소통 한마당

담양교육지원청은 “최근 청영린차고지 앞에서 ‘제1회 담양교육지원청 열린차고지 체험 마당’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팀을 이뤄 소통하며 조직 내 친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전기차를 직접 체험하며 미래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대별(오전·중간·오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직원들이 협동해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흥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전기차의 작동 원리를 익히고 시승해 보는 한편, 정비 기기를 활용한 차량 일상 점

검 및 자가 정비 요령(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을 배우며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현장 등록을 통한 개별 참여도 가능하게 해 직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평소 접하기 힘든 전기차 정비 상식을 배우고, 동료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돈독해지는 계기가 됐다”며 “친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체험 마당이 기후 위기 시대에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